

特別寄稿

李退溪에 대한 佐藤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의 尊信

東京學藝大學 名譽教授 山崎 道夫

| | |
|-----------------------|-----------------------|
| 目次 | |
| I. 序 | 2. 村士玉水の「李退溪書抄」 |
| II. 本論 | 3. 佐藤直方の李退溪尊信에 關하여 |
| 1. 稻葉默齋에 다음 말이 있다. | III. 結 |

<概要>

李溪退의 學은 日本에 들어와서는 主로 山崎闇齋 및 大塚退野에 의하여 繼承·發展되었다. 闇齋學派에서는 그 門下 三傑의 한 사람인 佐藤直方이 가장 정성껏 李溪退의 學問精神을 傳했고, 그 門流에 있어서도 李溪退에 대한 尊信은 말할 수 없이 깊었다. 本特別寄稿文은 이러한 李溪退 尊信의 높은 精神의 一端을 主로 直方の 全集〈韞藏錄〉 및 그 門流의 諸書에 依據하여 考證的으로 밝혀보려 한 것이다.

李溪退의 文集은 일찍 山崎闇齋와 더불어 日本道學의 祖로서 높이 評價받고 있는 土佐의 小倉三省의 盡力으로 蒐集되어 土佐에 傳해지고 珍貴하게 여겨져 있었다. 闇齋가 李溪退의 〈自省錄〉을 읽고 스스로의 學問의 根本精神을 삼았던 것은 慶安三年(1650) 三十三歲 時였고 이 때는 바로 直方の 誕生年이기도 했다. 李溪退를 尊崇하는 闇齋의 精神을 가장 잘 傳한 사람이 直方이고, 그것은 또 그의 門流에 繼承되었다.

直方の 門流인 稻葉默齋가 〈默齋壺篋錄〉에서 李溪退를 〈朱子の 道統이다〉고 하고, 薛文淸을 〈朱子以來의 一人者이다〉고 하고 있으나, 直方은 〈佐藤直方先生學話〉에서 李溪退와 薛文淸을 完全히 同等하게는

보지 않고, <李退溪의 學問은 薛文淸보다 앞서 있다>고 評하여 退溪를 尊崇하고 있다.

李退溪의 <自省錄>中の <答南時甫>의 一文은 直方의 門流 및 大塚退野의 學統인 肥後의 横井小楠 等に 매우 愛好되어 있었고, 特히 直方의 門下에서는 그 書中の 글귀를 卓자로 만들어 恒常 그 앞에 靜座하여 玩味하고 있었다 한다. 이 글귀에 關하여 跡部光海가 質問했을 때, 이에 答한 直方의 解說은 實로 平談俗語로써 道學의 妙를 찢러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 글귀에 關한 直方의 理解, 特히 心氣上에 있어서의 順境 逆境의 說은 內面으로부터 보다 깊숙이 李退溪와 相通하고 있다 하겠다. 나아가서 이 <答南時甫>의 一文은 朱子가 말한 <그 경우 그 경우에 따른 治療>의 意味를 據得한 것인데, 朱子以後 一人者로 손꼽히는 薛文淸도 이 理致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여, 李退溪의 學問은 薛文淸보다 앞서 있다고 直方은 力說하고 있다. (韞藏錄卷九 跡部氏手編)

韞藏錄卷二의 <討論筆記>에서 直方이 道學傳을 論述하여, 道統으로서 堯舜 二帝로부터 孔子 孟子 周子 二程子 張子 黃勉齋 蔡九峰 薛文淸 李退溪를 꺾어 山崎闇齋에게 이르는 相傳을 擧論하면서, 李退溪에 대해서는 <크게 元明의 諸儒가 比할 바 못된다>고 하여 높이 評價하고 있다.

直方이 六十七歲의 冬至 날에 門下中 傑中者를 爲하여 지은 一文, 所謂 <冬至文> 속에서 李退溪를 道學을 擔當하는 第一人者로서 記述하여 朱子 以後의 第一人者로서 李退溪를 높이 評價했다.

韞藏錄 卷四의 中庸說 中에서 朝鮮의 李退溪를 마땅히 程門의 上座에 두어야 할 人物이 아닌가고 力說하고 있다. 또 同書 續拾第三 永井行達所錄에서 中庸의 <無聲無臭>를 解說하면서, 그 理를 據得한 사람은 朱門에서도 黃勉齋 蔡九峰 두 사람 뿐이며, 朝鮮의 李退溪는 確實히 據得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同書 第四 酒井修教 記錄 속에서 自省錄을 읽은 直方의 感想으로서 朝鮮의 李退溪는 聖學의 蘊蓄을 진정 깊이 體驗 自得한 사람이라고 記述하고 있다.

直方이 編輯한 <王學弁論>은 王陽明을 論駁한 李退溪 林意峰 山崎

李退溪에 대한 佐藤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의 尊信

闇齋 佐藤直方 三宅尚齋 等の 論說을 모은 것인데, 이 冊의 맨처음에 <李退溪文集傳習錄論弁曰>하고 그 文章을 掲載하여 李退溪에 대한 尊崇을 表示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言及한 <冬至文>은 直方門流에 있어서는 道學의 宗旨로서 또 그 秘訣로서 每年 冬至日에는 이것을 講論함으로써 學脈을 謹嚴하게 하여 今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冬至文>속에 <李退溪之後 欲負荷此道者 吾未聞其人焉>고 말하고 있는 것은 李退溪에 대한 尊信의 至極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깊은 感銘을 받는다.

I. 序

佐藤直方(1650~1717)은 山崎闇齋 門下 三傑의 한 사람. 三傑이란 佐藤直方(字도 號도 없음. 號를 剛齋라 했다면은 誤傳·直方은 이름. 通稱은 五郎左衛門. 直方の 書에는 佐藤五郎左衛門, 佐藤直方, 直方, 때로는 佐直이란 略稱을 使用하고 있다. 弟子들 역시 佐藤直方先生, 또는 五郎左衛門先生으로 쓰고 있다.), 淺見綱齋(1652~1717), 三宅尚齋(1662~1741)의 三人이다. 三人의 學風에 關하여 楠本碩水是 「直方高矣, 綱齋明矣, 尚齋精矣, 闇齋先生則兼是三者者, 加以廣大, 此其所爲先生也.」(碩水遺書卷八)고 말하고 있다. 直方은 哲理에 높고 綱齋는 節義에 밝고, 尚齋는 學에 精細하다는 뜻으로 나는 解釋하고 있다. 말하자면 直方은 가장 哲人風의 爲人, 綱齋는 節義의 爲人, 尚齋는 學者型의 爲人이었다.

李退溪(1501~1570)의 學은 日本에 들어와서는 主로 山崎闇齋(1618~1682), 大塚退野(1677~1750)에 의하여 繼承·發展되었으나, 闇齋 學派에서는 直方이 가장 정성껏 李退溪의 學問精神을 傳웠고, 그의 門流의 稻葉迂齋(1684~1760), 그의 아들 默齋(1732~1799)와 그 門流에 있어서도 李退溪에 대한 尊信은 普通 이 아니었다. 이제 直方の 全集 韞藏錄 및 그 門流의 書에 依據하여 尊信表明의 事例를 한 두 가

지 記述함으로써 直方 및 그 學統에 있어서의 李退溪 尊信의 높은 精神을 살피 보코자 한다.

II. 本 論

1. 稻葉默齋에 다음 말이 있다.

朝鮮의 李退溪는 朱子의 道統이다. 朱子訓에 오직 쫓아서 秋毫도 朱子의 規模範圍를 넘지 않는다. 小成의 朱子이다. 薛文淸도 진정 朱子以後의 一人者이다. 明의 方孝孺는 確實히 道統이라고 直方이 말했다. 靖獻遺言에 記載되어 있다고 하여 節義의 士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默齋草卷二「孤松全稿二卷 籟篔錄」)

李退溪를 「朱子의 道統이다」고 하고, 薛文淸(1392~1464)을 「朱子以後의 一人者이다」고 하고 있으나, 直方은 李退溪와 薛文淸을 完全히 同等하게는 보지 않고 있다. 「佐藤直方先生學話」에

薛文淸이 그만큼 學識이면서도 元의 許魯齋(1209~1281)를 尊敬하고 있다. 首肯이 가지 않는 일이다. 許氏도 죽음에 즈음해서는 元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싫어 했던 것이다. 李退溪의 學問은 薛文淸보다 앞서가 있다.]

고 말하고 있다. 靖獻遺言의 八士의 한 사람인 劉因이 元朝에 出仕하지 않고 處士로서 一生을 마쳤는데 比하여 許魯齋는 出仕하여 世祖를 섬긴 것을 들어 直方은 이와 같이 非難한 것이다. 靖獻遺言은 中國의 烈士 八人, 卽 屈原, 諸葛孔明, 陶淵明, 顏真卿, 文天祥, 謝枋得, 劉因, 方孝孺의 事蹟遺文에서 따서 綱齋가 君臣의 大義를 밝힌 것인데 그 가운데 方孝孺(1357~1402)에 대해서 直方이 「道統也」고 評한 것은 注目할만 하다.

2. 村士玉水の 「李退溪書抄」

처음에는 三宅尚齋의 門下에서, 後에 가서는 稻葉迂齋의 門下에서 修學하여 默齋等과 함께 道學에 精進한 사람으로서 村士玉水가 있다.

李退溪에 대한 佐藤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의 尊信

이 사람의 손으로 「李退溪書抄」十卷十冊(日本刻版「李退溪全集」下卷)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特記할만한 價値가 있다. 默齋가 「그의 學問이 크게 進入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朱子書節要의 講究에 있다」(吾學源流)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退溪의 朱子書節要를 講究한 結果로서 「李退溪書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冊의 古賀精里의 序에 「先生之輯節要也, 能得朱子之心, 幸教後學, 今此書蓋亦倣之, 玉水翁之信先生, 猶先生之信朱子」하고 쓰여 있다. 이로써 이 冊이 이루어진 所以와 그가 李退溪를 尊信하는 까닭이 如何한가를 알 수 있다.

3. 佐藤直方の 李退溪尊信에 關하여

(1) 李退溪文集을 봤다는 일.

直方이 李退溪文集을 본 것은 酒井侯의 邸宅에서 엮다는 記錄이 있다. 元來 閩齋學派의 사람들은 祿仕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俸祿때문에 道를 굽히는 것을 許容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디를 가나 祿仕의 痼疾 뿐이외다」고 直方이 谷秦山에게 보낸 書信과 같이 祿仕는 決斷코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賓師의 禮로써 道를 求하러 오면 그런 일에 拘礙하지 않았는 데에 또 한 산뜻하고 疎脫한 直方の 人品이 엿보이기도 한다. 直方은 福山の 水野勝種侯, 厩橋의 酒井忠舉侯, 그리고 그 밖에도 伊勢崎의 酒井侯, 伊勢의 長嶋侯, 肥井의 土井侯, 箆林의 松平侯, 遠江의 西尾侯, 出羽의 佐竹侯, 彦根의 井伊侯 등으로부터 懇望을 받아 道를 講論했다. 한번 講論에 들어가면 君臣은 平等이라는 嚴格한 師道로써 스스로의 位置를 지켰다. 上述의 酒井侯의 邸宅에서 李退溪文集을 보고 있다. 全集 韞藏錄卷九 跡部氏手編(跡部光海)의 項에

酒井雅樂頭(厩橋藩 酒井忠舉侯를 말함. 厩橋는 只今の 前橋.)의 邸宅에 唐書를 爲始하여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많은 冊들이 있었다. 그 冊들을 擧風했다. 四書의 蒙引 같은 것도 只今の 版木보다 詳細한 것이 있다고들 한다. 李退溪文集도 있어서 大概 봤다. 죄다는 보지 못하였다. (傍點筆者).

고 쓰여져 있다.

(2) 李退溪文集이 土佐에 들어 와 있었다는 일.

韞藏錄卷十一 菅野兼山所錄之語에

享保丁酉(丁酉는 그 二年, 때에 直方六十八歲, 歿二年前의 일.) 八月 처음으로 直方先生을 뵈우게 되었다. 때마침 大學或問의 講釋이 있었다. 先生이 말씀 하셨다. 土佐의 사람이 말하기를 本朝의 道學은 山崎嘉右衛門(關齋의 通稱)에서 비롯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서 土佐의 땅에 小倉氏彌右衛門(號는 三省, 土佐南學理學의 宗主.)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먼저 發起했다. 진정 大學이라는 것이 있으면 小學이라는 것도 있어야 한다고 하여 찾아 求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朱子의 마음과 暗暗裡에 相通하는 것이다.

土佐에 또 野中伯耆(兼山은 그 號, 伯耆는 通稱, 後에 傳右衛門이라 稱함. 土佐藩의 執政.)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土佐의 主로서 高祿을 받는 者이다. 그런데 小倉과 懇親한 사이였다. 學問에 뜻을 가진 사이어서 國主에게 申請하여 二百石을 받는 사람을 長崎에 常住시켜 諸書를 求하게 했다. 그때 小學大書を 얻어 年樂寺에 命하여 처음으로 版行했다. (大書은 좋은 註解는 아니다.)

그 무렵 山崎氏는 京都 妙心寺의 住持 大通이라고 하는 僧侶의 弟子로서 絶藏主라 이름하였는데 土州(土佐의 吸江寺)에 修學하러 가서 小倉과 만났다. 小倉이 그의 器量을 보고 때때로 道學에 몸을 둘 것을 勸告함에 二十四五歲에 還俗하니 野中이 곧 바로 百石을 주어 後援했다. (關齋가 土佐에서 二十五歲에 佛敎가 그 道가 아님을 깨닫고 儒敎에 歸屬한 것은 그가 三十五歲에 著述한 「關異」에 詳細하다.)

그러하여 山崎는 中年에 이르기까지 때때로 土佐에 往來했다. 위와 같은 事情으로 말미암아 土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맞다 하겠다. 그러나 本朝에 있어서의 道學의 祖로서 山崎를 大書하고, 혹은 小倉이라고도 써야만할 일이기도 하다.

고 小倉三省은 山崎關齋와 함께 道學의 祖로서 높이 評價하고, 또

小倉의 發明은 到底히 嘉右衛門을 따르지 못 한다. 土佐에서 諸書를 蒐集했기 때문에 日本에 稀貴한 朝鮮李退溪文集도 있는 것이다.

고 李退溪文集이 土佐에 傳해져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珍貴하게 여겨져 있었다는 것이 記錄되어 있다.

(3) 李退溪의 「自省錄」과 直方派.

李退溪의 「自省錄」은 그가 門人知友에게 보낸 書信 二十二通을 自選하여 自己反省의 資料로 한 것이다. 自省錄의 內容은 勿論 「李退

李退溪에 대한 佐藤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의 尊信

溪文集」과 重複되나 退溪自身の 編錄인만큼 退溪의 思想과 그의 精神을 攄得하기에는 가장 簡明하고 要綱을 갖춘 것이라 하겠다. 闇齋는 그의 初年期, 慶安三年(1650) 三十三歲 時 처음으로 自省錄을 읽고 感憤興起하여 스스로의 學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나의 存在方式을 自得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闇齋의 學問은 그 根柢에 李退溪의 學問이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闇齋가 처음으로 自省錄을 읽게 되었던 慶安三年에 佐藤直方이 誕生하고 있다.

李退溪를 尊崇하는 闇齋의 精神을 가장 잘 傳한 사람은 直方이며 그것은 또 그의 門流에 繼承되었다.

(4) 「自省錄」中の 「答南時甫 彥經」一文

이 글은 自省錄의 맨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南時甫라는 젊은 門下生의 心疾을 治癒하기 위하여 준 글이다. 이一文은 佐藤直方の 門流 그리고 또 大塚退野의 學統을 이은 肥後의 橫井小楠을 몹시 感銘시킨 것이다. 特히 直方の 門下에서는 그 書中の 글귀를 족자로 만들어 玩味하고 있었다는 事實이 韞藏錄卷九 阿部氏(光海) 手篇에 나타나 있다. 더우기 「答南時甫」一文이 直方派 및 小楠 等に 愛好되었다는 事實에 關해서는 阿部吉雄博士가 日本刻版 「李退溪全集」의 解題, 李退溪研究會第三號 日本中國學會報第二十集 「江戸期の 儒學에 引用된 李退溪自省錄」에서 詳說하고 있음으로 紹介해 둔다.

(5) 「答南時甫」書中の 글귀를 족자로 만들었다는 것과 直方の 順境逆境의 解說.

跡部光海의 筆錄에

牀上에 自省錄의 글귀를 榊原玄甫가 筆書한 족자를 걸어 두고 愚生이 물어 말한다.

愚生이란 筆錄者 光海自身이고, 書中の 글귀의 뜻을 直方에게 물었던 것이다. 筆書者인 榊原玄甫는 號를 篁洲라 하고, 木下順庵 門下出身의 學者이다. 그의 訓話는 馬融鄭玄의 舊說에 依據하고, 義理는 程朱의 性理에 立脚한 사람이며, 後世 우리나라의 折衷學은 이 사람에게 胚胎한다. 跡部또 가로되

韓國의 哲學 第四號

이 글귀는 以前에 友部丈(安崇을 가리킴)로부터 얻어 듣고 재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이와 같이 써 얻어 걸어 두고 때때로 보고 있습니다.

고, 그러나 近年 窮理의 方面에만 마음을 써서 이 족자의 意味가 옆으로 어긋 나가버렸다. 또 한편 요즘은 靜坐의 가르침에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제 窮理이니 靜坐이니 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中인데

이 글귀는 좋습니까, 어떠합니까.

하고 물음에 直方은

果然 좋은 글귀로구나.

고 對答했다.

그렇다면 이 글귀 속에 있는
至如圖書花草之玩，溪山魚鳥之樂，苟可以娛意適情者，不厭其常極。使心氣常在順境中，無拂亂以生嗔意。是爲要法。
고 있는 이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 昭詳히 順境 逆境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물는데 대하여 사람의 順境 逆境이란 무엇인가에 解答하는 直方의 가르침이 매우 興味 津津하다.

直方이 說破하는 順境 逆境의 뜻은 直方 特有的 講說이며, 富貴貧賤에 超脫하고 本性에 쫓아 自得의 境地에 到達할 것을 論破하는 대목은 정말 絶妙하다. 생각컨대 退溪와 相通하는 바 여기에 있다고나 할까.

(直方)答하여 가르쳐 順境이란 마음을 物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不滯) 술술 미련 없이 평안스럽게 하는 것이니라(スラリ スラリト スルコトゾ). 圖書花草溪山魚鳥의 類, 그것마다 그대로 술술 마음 얽히는 일이 없이 無心하게 보고(ソレナリ ソレナリニ スラリ スラリト 見テ), 마음을 즐기게 하고 情에 알맞게 하는 것 뿐. (이라고 하는 뜻일까)

진정 退溪의 뜻에 맞는 直方의 解說이다. 「スラリ」란 物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걸리어 얽히지 않는 것. 「ソレナリニ」란 物의 本性을 歪曲함이 없이 보는 것. 「スラリ」도 하여 私意가 없는 평안스러운 것이 自適의 境地로서 道學의 妙境이다. 「スラリト」란 辭典에 「평안스

李退溪에 대한 佐藤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의 尊信

럽고 결림이 없는 모양』이라고 적혀 있다. 孔子가 曾點을 稱讚한 것도 (論語先進篇), 曾點의 이와 같은 평안스럽고 결림이 없는 心境에 滿足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直方이 또 이어 가로되

花草魚鳥의 類일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머물러 있게 하여(사로잡혀서) 好事心を 일으켜 茶를 마시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逆境 이니라(茶ノ湯者ノヤフニ 思フト 逆境ゾ—참물을 따르거나 마시는 예법의 번거롭고 까다로움을 말한 것 같다. 譯者註)

逆境이란 物에 마음이 사로잡혀 本心を 喪失하는 것이다. 花草魚鳥에 마음이 사로잡혀 好事心を 일으키고 遊山이나 珍奇한 物件을 蒐集하느니 茶會이니 하는 꼴로 되면 그것은 이제 이미 逆境이라고 하는 말은 또한 深妙하다. 南時甫의 心疾도 이러한 것으로서는 治癒할 수 없을 게다.

直方の 靜坐의 가르침에

새소리 바람소리가 마음에 울릴때까지는(スラリト……마음이 평안스럽고 결림이 없다) 未發의 場이다. 새다 바람이라고(마음이 움직여 안정되지 않다)하는 것은 벌써 已發의 場이고 後에 아는 것이 좋다.

已發의 場이 되어 마음이 사로잡혀 빼앗기는 것을 直方은 逆境이라 했다. 龜藏錄續拾遺第四의 「與永井玄黃手帖」에 曾點을 論하여 말한다.

미련 없이 산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サラリサラリト スルコソ) 世相에 산다고 하는 것이로다. 曾點의 人欲盡處天理流行은 여기에 있다.

論語先進十一의 이 箇所의 朱註에

曾點之學，蓋有以見夫人欲盡處天理流行，隨當充滿，無少欠闕，故其動靜之際，從容如此。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평안스럽게(スラリスラリ) 또 마음이 미련 없이 산뜻하게(サラリサラリ) 이처럼 平談俗語로써 道學의 妙를 절러 말하는데에 바로 直方の 眞髓가 生生하게 들어나 있다 하겠다. 또 가로되

사람이 나에게 나쁜 것을 하려 들 때 저것은 들리지 않는다고(알아 들

韓國의 哲學 第四號

지 못 하는 말을 한다고) 얼굴을 찌푸리던 順境이 아니고逆境이다. 저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평안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順境이다.

孔子의 「六十而耳順」이 順境이고, 明道の 「定性書」에서 말하는 「擴然而大公, 物來而順應」의 心境이 또 이것에 該當한다.

(6) 病患에 對處하는 일에 關하여.

韞藏錄卷九 跡部氏手編에

朱子語類에 門弟에게 그 경우 그 경우에 따른 處理에 關한 가르침이 있다. 朱子의 文字로서는 그 地頭(地步)에 卽해서 보라고 말했다. 재미 있는 일이다.

는 글이 있다. 일은 그 경우 그 경우의 狀況에 相應하여 處理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直方이 말한 「物에 마음을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미련 없이 평안스럽게 하는 것이니라」와 같은 뜻이다. 그리하여

(病에도) 그 경우 그 경우의 治療가 있을 터이다. 朱子以後 李退溪만이 이 理致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다. 退溪의 學은 能學이다. 薛文靖 程度の 學識으로서도 이 理致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居業錄따위도 순혀 모르고 있었다.

고 말하고 있다. 「答南時甫」의 一文도 朱子가 말한 「그 경우 그 경우에 따른 治療」의 意味를 攄得한 것이라 하겠다.

(7) 道 學 傳

韞藏錄卷二의 「討論筆記」는 道學이 傳해진 것을 論述한 것으로서 하나의 道學傳이다.

或問敬義先生(敬義는 關齋의 字)之出處於予. 予應之.

竊謂堯舜以來, 道學相傳而至于孔孟. 孔孟之後秦漢隋唐, 其學不傳. 至于宋, 周程張朱接其統, 而道學復明于世. 朱門黃勉齋蔡九峰實得其傳. 其餘蓋無聞焉. 元明之間, 以儒名者, 不可枚舉. 而至于其窺聖學門牆, 則方孝孺薛文清才見此二人而.

朝鮮李退溪東夷之產, 而悅中國之道, 尊孔孟, 宋程朱, 而其學識之所造, 大非元明諸儒之儔矣.

以上 漢土로부터 朝鮮에 이르는 道學의 相傳을 記述하여, 다음에

旧本에 미쳐 山崎闇齋에게 當到한다.

我邦中古信儒道，而自王公以下，學焉者亦衆。然如聖賢道學之義，則尚未嘗知其說也。朱書之來於我邦，數百年之久，讀書不爲少。而識其發明道學之正義，而爲萬世不易之定準者，未聞其人焉。

近世山崎敬義先生，尊信朱子，得於其書，而博文之富，議論之正，實我邦儒學正派之首倡也。其所著書行于世，讀書深達其意，則識先生發揮道學進爲之方，而使學者不惑於所從矣。以下略

道統으로서 堯舜二帝로 부터 孔子, 孟子, 周子, 二程子, 張子, 黃勉齋, 蔡九峰, 方孝孺, 薛文清, 李退溪를 거쳐 山崎闇齋에게 이르는 相傳을 擧論하고 있다.

李退溪에 對해서는 「크게 元明 諸儒의 儔가 아니다」고 하여 높이 評價하고 있다. 그리고 闇齋에 關해서는 「我邦儒學의 正派의 首倡이다」고 認定하고 있다.

(8) 直方の 「冬至文」과 李退溪.

「冬至文」이란 直方이 六十七歲의 冬至入 날에 一文을 지어 門下中傑出한 所謂 藤門三者인 稻葉迂齋, 野田剛齋, 永井隱求의 三者에게 주어서 聖學에 勉勵하는 者는 道學의 擔夫이라 하여 任命하고 또 激勵한 것이다. 이 冬至文은 直方 一代의 學의 綱要로서 그 以前에 이룩한 講學鞭策錄, 道學標의 을 더욱 힘차게 스스로의 短文으로 表示한 것이다. 道學에 精進하는 哲人의 擘이며 直方の 眞面目이 躍動하고 있는 듯 하다.

이 一文 속에서 李退溪를 道學을 擔當하는 第一人者로서 記述한 것은 注目할만 하고, 朱子以後의 第一人者로서 李退溪를 높이 評價했다.

道之廢而不行，猶擔物之捨置地上也。若有其人出於其時，則任之而使不墜地。今務聖學者乃擔夫也。俗學之徒，則路中之游手耳。何足望道之任乎朝鮮李退溪之後，欲負荷此道者，五未聞其人焉。(冬至文，下略)

(9) 李退溪를 程門의 上坐에 두다.

韞藏錄卷四에 中庸書說이 있고, 中庸의 理를 論述하고 있다. 그 속에서 李退溪를 마땅히 程門의 上坐에 두어야 할 人物이 아닌가 하는

說이 있다.

먼저 中庸의 理를 論하여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 理
無聲無臭至矣 理

理不離氣氣不離理. 天地人皆理氣妙合이다. 孔子曰一陰一陽之謂道. 又曰易有太極. 大學論語孟子六經皆理氣에 다름 아니다. 中庸의 一書는 理의 極致本原을 說破한 것이니 聖學至極의 書이다. 初學不可讀의 言宜矣. (朱子語類六十二, 中庸一綱領에 「中庸初學者未當理會.」) 이러하므로 俗儒는 손을 댈 수는 없다. 吾黨에서도 조금 불만한 데가 있는 사람이 아닌 먼 십사리 잘 首肯이 가지 않을 터이다. 그 맛이 無窮하니 모두 實學을 볼 수 있으리라. 우리도 中庸을 볼뉘 마음속을 씻고, 이제까지의 사람이 아닌 양으로 되어 보지 않으면 비치지 않는 법이다. 마음이 활짝 트이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못 된다(氣ノ窟ノヌケヌ人ノナルコトデナシ). 또 放心한 사람이 할 일도 아니다(亦氣ヲ捨ル人ノコトデナシ). 朱子曰. 天理人情於是爲至矣고 말하는 것도 이 點인 것이다.

周子の 門人에는 그런 듯한 사람이 있다고는 듣지 못 했다. 李初平 한 사람이 어느 程度 깨졌다고 하나 學識으로 말하면 同座(同門)라고는 말할 수 없다. (伊洛淵源錄 濂溪先生事狀에 「在郴時郡守李公初平, 知其賢與之語而歎曰, 吾欲讀書何如, 先生曰, 公老無及矣, 某也請得爲公言之, 於是初平日聽先生語, 二年果有得.」). 程子門人에는 楊龜山 謝上蔡 呂與叔은 確實히 同座이다. 그 밖에 문턱까지 와 앉았던 사람이 있었으나 程子の 門人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呂與叔도 程門이 되어서 불만한 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朱子에서는 黃勉齋 蔡九峰이 確實히 同座이다. 그 밖에 문턱에 와 앉았던 사람으로는 吳伯豐 같은 이가 한 두 사람 있었다고나 할까. (吳心大, 字伯豐, 戊申己酉問答을 記錄함. 朱子가 그의 守居治事皆方有를 稱讚하고 있다. 文集五三 「答劉季昌書曰, 吳伯豐死, 吾道不幸. 遽失此人, 餘子紛紛纔有毛髮利害.」)

薛文清은 眞儒로는 보이나 불만한 데가 빠져 있는 것은 어쩔 셈인가. 그 밖에는 한 사람도 그 周邊에 바라 불만한 사람이 없다.

朝鮮의 李退溪는 確實히 同座이다. 程門의 上座에 位置할지도 모른다. 堯舜以來의 同座를 헤아려 봐도 정말 겨우 몇 사람 뿐이다.

(10) 中庸의 無聲無臭를 解說하고, 그 理를 아는 사람은 李退溪이다고 함.

韞藏錄續拾遺第三 永井行達所錄에

그런데 無聲無臭(中庸章句三十三「上天之載無聲無臭.」)의 箇所를 잘 據

李退溪에 대한 佐藤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의 尊信

得 한 사람은 失門에서도 黃勉齋 蔡九峰의 두 사람이다. 그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朝鮮의 李退溪는 確實히 據得해 있었다고 여겨진다. 薛文濤도 여기에 이르러서는 어쩔는지 열려스럽다. 聖人이란 단 사람이 아니라 비로 여기에 달한 사람이다(생각컨대 理氣妙合을 말한다). 이 境地를 잘 據得하는 사람조차 없는데 이 境地에 이르러 太極과 하나로 된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이다.

(11) 自省錄을 읽은 直方의 感想. 李退溪는 진경 道를 自得한 사람.

韞藏錄續拾遺第四 酒井修教記錄(上總道學의 基礎를 닦은 사람. 享保十二年 成東大橋를 修理하기 위하여 郡牧의 主簿인 修教는 이 地域에 왔다. 好學의 青年을 發掘하여 稻葉迂齋의 門人인 修教는 和田儀丹, 鈴木養察의 二名을 迂齋의 門下에 游學시켰다. 後에 迂齋의 아들 默齋가 上總의 땅에 들어 오게된 緣由로도 된다.)에

聖學의 蘊蓄은 孟子의 歿後 漢唐間간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宋朝에 이르러 周程張朱의 四子가 그 蘊蓄을 啓發했다. 이룰때면, 漢唐의 儒者는 酢(초)와 醬酒(간장)라는 이름은 알고 있어도 짠 것인지 단 것인지 그 까닭도 알지 못한다. 宋朝에 이르러 四子가 맛을 혀로 잘 알아 깨닫고 酢(초)는 시다고 하고 醬油(간장)는 짜다고 했으나 죄다 알아 깨닫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蔡九峰, 黃勉齋 등이 알아 깨닫고 한 말이 있다. 薛文濤가 讀書錄을 吟味하여 覺醒한 바 있는 듯 쓰여져 있으나, 一圓(一圓이라 쓴다. 머우기이니 한결같이 이니의 뜻으로서 밑에 否定語가 온다.) 吟味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朝鮮의 李退溪가 지은 自省錄을 보니 이것은 맛보고 씹어 깨달은 것이다. 그 밖에는 좋으니 짜니 시다니 하고 말을 해도 귀로만 듣고 알았을 뿐이고 實際로 씹어서 먹어 보고 깨달은 것은 없다. 이 맛은 알아 깨달아도 이터 이러한 것이라고 말 할 수도 없다.(自得의 學이 아닌 證據.)

이제, 學者는 四子의 말을 먼저 귀로 들어 깨닫고 더욱 進入하면 거기에서 맛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中古의 賢人이 알아 봤느니 알았느니 하는 까닭을 理解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通俗의인 말로써 興味津津한 比喻를 써서 道學의 妙를 說破한 點, 果然 直方이 아니면 볼 수 없는 言說이다.

(12) 直方이 編輯한 「王學辯集」에 맨 먼저 李退溪의 글을 記載하고 있는 일.

直方이 編輯한 「王學辯集」은 王陽明을 論駁한 李退溪, 朴鳶峰, 山崎

闇齋, 佐藤直方, 三宅尚齋 等の 論說을 모은 것이다. 이 冊의 直方の 序는 直方先生 一代의 文學이라고 默齋는 評하고 있다. 이 冊은 맨 먼저 李退溪文集傳習錄論辯曰하고 그 文章을 掲載하고 있으나 이제 여기에서는 省略하고 다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紹介만 하고 그만 그친다.

(13) 朱子誕生時 紫氣云云에 關하여.

韞藏錄續拾遺第一에

朱子行狀에 朱子誕生時 남은 우물에서 紫雲이 오르고 있었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일을 李退溪가 쓴 것은 좋지 못 하다. 奇妙한 이야기이다. 聖賢이 태어날 때에 奇妙한 일이 있다면 어느 聖賢이 태어날 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 聖賢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때마침 紫雲이 올라 왔을게 다고 해두는 것이 좋다.

退溪李滉「朱子行狀輯註」를 檢討해 보면

一統志藝源有韞齋井, 相傳, 先生生時井口有紫氣.

고 있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로서 그 만큼 尊崇하는 李退溪에 對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죄다 들어 내고 덜어 두지 않는다. 여기에 또한 直方一流의 舌法을 볼 수 있다.

III. 結

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 李退溪에 대한 尊信이 어떠한 것인가는 以上으로써 다해진 것은 아니나 그 尊信이 깊었다는 것은 밝혀졌으리라고 생각된다. 「答南時甫」書中の 語句에 關한 直方の 理解, 特히 心氣上에 있어서의 順境 逆境의 說은 內面으로 부터 보다 깊숙히 李退溪의 생각에 當到했는 것으로 생각한다. 直方은 진정 李退溪를 理解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以上 說述한 것 가운데 尊信을 이야기해 주는 說을 하나 둘 摘出하여 結語로 삼는다.

默齋曰, 小也의 朱子(默齋廬庵錄).

直方曰, 李退溪의 學問은 薛文清보다 앞서 있다(直方先生學話). 李退溪

李退溪에 대한 佐藤直方 및 그 門流에 있어서의 尊信

東夷之產，而悅中國之道，尊孔孟，宗程朱，而其學識之所造，大非元明諸儒之儔矣(註論筆記). 山崎闇齋에 對해서는 我邦儒學正派之道唱也(註論筆記)라 말한다. 直方 또 가로되 李退溪之後，欲負荷此道者，吾未聞其人焉(冬至文), 朝鮮의 李退溪는 確實히 同座이며 程門의 上座에 位置할는지도 모른다(中庸書說). 中庸의 無聲無臭의 箇所를 깨달은 사람. 李退溪는 確實히 깨달았다고 보여진다(永井行達所錄). 李退溪가 쓴 自省錄을 보니 이것은 맛보고 씹어서 깨달았는 것이다(酒井修教).

저 「冬之文」은 直方門流에 있어서는 道學의 宗旨로서 또 그 秘訣로서 每年 冬至日에는 이것을 講論함으로써 學脈을 謹嚴하게 하여 今 日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冬至文 속에 「李退溪之後，欲負荷此道者，吾未聞其人焉」고 말하고 있는 것은 尊信의 至極한 것이라고 筆者 스스로 깊이 感銘을 받고 있는 바이다. 이로써 結語로 삼는다.

(金基台譯)